

## 한일의 미래, 극일론과 안행형태관의 수정

\* 이 자료는 후카가와 유키코(深川由起子) 와세다대학 교수가 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: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(극일론과 안행형태관의 수정('15.6.4)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현실에 맞추어 한일 양국의 경제인식을 바로 해야
- 한일의 비교우위 격차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축소
- 한일 양국에는 여러 가지 보완관계와 협력 잠재력이 존재

### □ 역사인식 문제와 경제 문제의 분리

- 6월 22일, 한일은 심각한 관계악화 속에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되는데, 한국 정부는 종군위안부 등 역사인식 문제에서 안보와 경제문제를 분리 방침으로 전환
  - 그러나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점은 한일 공통으로, 경제관계가 대립요인 밖에 있는 것은 아님
  - 오히려 과거에는 압도적이었던 경제력 격차의 축소가 대립의 배경일지도 모르며, 더욱이 격차 축소의 현실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큼

### □ 양국 경제관계 변화 올바르게 파악해야

- 한일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글로벌화에 직면하면서 양국 관계도 크게 변화되었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감정대립은 종종 경제관계를 구태의연한 국경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놓고 비뚤어진 경제인식을 조장해왔음
- 이 같은 왜곡을 바로잡고 각자의 성장전략 속에 상대를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하지 않는다면, 경제관계 만을 분리시켜 원만히 유지하는 것도 용이하지는 않음

### □ 한일 경제의 공통점

- 한일 모두 농업을 제외하면 무역의 개방도가 높고 산업의 국제화도 진전되고 있음

-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한일 모두 산업정책의 전통을 지니고 있고, 외국인투자에서 세계적으로 크게 뒤처지는 등 국민경제의식이 강함
- 경제실패의 이면에는 한국은 전통적인 민족감정, 일본은 과거 안행형태론적\*인 발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국경이라는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
- \* 안행형태론은 후발국의 캐치업형 산업발전을 설명한 이론의 하나로서 일본의 아카마츠 카나메(赤松 要)교수가 주장

#### □ 한국의 캐치업에 기여했던 극일론 후퇴, 민족감정만 남아

- 최빈국에서 출발하여 구매력평가로 보면 일인당 국민소득에서 거의 일본에 따라붙은 한국의 역사적 동력은 캐치업(catching-up)형 공업화에 있음
- 한국은 경제에서는 극일 논리가 일정 정도 민족감정을 통제해왔음
- 그러나 근년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견인한 것은 중국 등 신흥국이었으며, 기술 도입선도 일본의 기술혁신 정체로 전자기기와 IT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으로 이전됨
-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2극체제와 함께 극일이 후퇴하고 대일관계는 민족감정만이 남아있음

#### □ 일본도 일본이 선도하는 아시아경제관 불식 못해

- 한편, 일본은 지금도 첨단기술 개발을 오로지 일본이 담당하고, 기술 및 자본재·부품을 인건비가 저렴한 아시아 지역의 조립·가공 거점에 공급하고 있던 시대의 아시아경제관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
- 이러한 점에서는 한국도 근년까지는 마찬가지이며, 경직된 대일 무역적자비판은 그 일부라 할 수 있음

#### □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제인식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

- 기술의 디지털화나 생산체계의 모듈화, 기술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의 국제적 이동 등으로 국제경쟁조건이 크게 변화되었음

- 신흥국들의 캐치업은 기업이 올바른 사업선택과 함께 경영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아님
- 전자산업 등 한국이 재빠르게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인 분야에서는 기술유출과 지적재산권 분쟁 등으로 일본 측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 있음
- 우선은 현실에 맞춰 경제인식을 바꾸는 것이 출발점임
  - 최근까지 저평가된 환율을 배경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룩해왔던 한국에서는 미디어나 정책담당자의 사고가 서플라이체인보다도 단순한 무역통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
  - 총액기준으로,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.4%, 수입의 17.1%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존재인데 비하여, 일본은 각각 5.6%, 10.2%에 불과함(2014년)

#### □ 단락적인 한국의 통상정책

- 기업의 다국적화에 따라 근년에는 국경을 넘어선 이른바 광역 서플라이체인이 중요해지고 있는데,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 무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한일간 무역에서는 더욱 그러함
- 한편, 중국은 한일보다도 개방적인 산업집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, 한중무역은 단순히 한국·중국기업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
-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이 중국 거점의 공급으로 대체되는 경우, 그만큼 한중무역이 증대되고 한일무역은 축소될 수 있는데, 이 같은 서플라이체인 변화를 한국과 중국의 대두 = 일본의 쇠퇴라고 단언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단락적임
- 단락적인 사고에 치우친 한국의 통상정책은 2국간 FTA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 TPP와 같은 광역협정의 조류를 뒤늦게 탐

#### □ 한일간 비교우위 격차 축소

- 한편, 과거 안행형태시대와는 달리, 한일의 비교우위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근접하고 있음

- OECD의 부가가치무역을 기준으로 한일의 비교우위의 변화를 보면, 전자기기 분야에서는 이미 한일의 비교우위는 2000년대 전반에 역전, 수송기계 분야에서도 그 차이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음
- 전자기기 분야의 최대품목은 한일 모두 디바이스로 한일간 무역에서는 일본이 프로세서 등의 집적회로를 수출, 한국에서 메모리를 수입하는 등 전형적인 수평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
- 한국의 정규직 임금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상회하고 있음
  - 왜곡된 고임금체제는 많은 비정규직이나 높은 청년실업을 등으로 유지불능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노동개혁은 난항중임
  - 저렴한 인건비와 저평가된 환율 하에서 기술을 도입하여, 오너 경영자의 과단성 있는 집중적인 투자로 양산을 도모하는 성장모델은 이미 과거의 산물임
  - 한국의 연구개발형 투자는 GDP 대비로는 세계 최고 수준임
    - 절대액으로 보더라도 미·중·일·독에 이어 5위이며, 정보통신과 바이오 등 지식집약형 산업에 주력하고 있음

## □ 하드 중심 사고의 극일론과 안행형태론

- 한국의 극일론과 일본의 안행형태론은 하드 중심사고의 산물이기도 함
  - 특히 한국에서는 극일론이 후퇴하긴 했어도, 여전히 일본은 제조업에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경쟁을 해야 하는 상대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
  - 국민경제 단위로는 일본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현재의 한국과 같은 수준이었던 것은 1980년대 말로 이미 4반세기 전임
-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주기적인 엔고로 해외생산이 확대, 산업구조가 한국보다도 훨씬 서비스화 되었음
  - 미국 포춘지에 의하면, 글로벌 500대 기업(2014년)에 들어간 한국기업 17개사 중 12개사가 제조업체인데 비하여, 일본기업 59개사 중 제조업체는 절반 이하로 나머지는 은행이나 보험, 상사, 통신 등이 점하고 있음

## □ 한일간 보완관계와 협력 잠재력

- 현실을 주시하면,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보완관계나 협력의 잠재력이 있음
  - 한국의 국제적인 제조업체는 일본의 상사나 은행과 다양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, 또 국가가 아닌 인력 차원에서 보면 국제적인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일본기업도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채용하고 있음
  -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비즈니스 환경정비나 입지조건에서 경쟁하고 서로 적절한 압력을 주는 것이 건전한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임

## □ 일본의 6중고 한국으로 이동

- 아베노믹스가 실시되기 이전 일본에서 지적된 6중고(엔고, 높은 에너지비용, 법인세, 환경규제, 노동규제, FTA정책에서 낙장대응 등 대외경쟁조건의 불리(입지적 열위)는 이제 한국으로 이동 중임
  - 한국은 대폭적인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원高, 공기업개혁으로 인한 전력요금의 인상, 세수부족으로 인한 증세 논의, 환경기준의 대폭 인상, 노동규제와 임금개혁의 지체 등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FTA피로가 확산되고 있음

## □ 돌파구로서 한일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·교류

-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IT에서 바이오나 새로운 농업에 이르기까지 벤처의 교류도 유익할 것임
  - 방재, 감염증대책, 고령화 사회, 도시교통 등 첨단연구 분야에서 실험연구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임
  - 행정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, 사법 분야에서는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한 경쟁이 요구됨
- 국교정상화 50주년 이후 한일의 새로운 경제관계는 글로벌화에 따른 인적이동과 정보량 증가추세에 맞추어 부의 에너지를 플러스로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

□ 시사점

- 극일론과 안행형태론은 한일의 캐치업형 산업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이라고 생각됨
- 그러나 극일론은 한국 내 정서인데 비하여 안행형태론은 국제경제·산업발전 분야의 정립된 이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석방법에 한계가 있음
  - 더욱이 극일론은 후퇴하고 민족감정만 남았다는 주장은 동조하기 어려움
- 다만 지적되고 있듯이, 한일 양국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평가하는 단락적인 사고를 버리고 경제 환경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협력가능성을 찾아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참고할 필요. 끝.